

동시대 무용 연구방법론을 위한 길잡이

A Guide to Contemporary Dance Research Methodology

이지선(Lee, Jeesun)*

Dodds, S. (ed.) (2019). *The Bloomsbury Companion to Dance Studies*. Bloomsbury.

동시대 무용은 해체된 예술개념과 학제간 활발한 교류로 그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무용연구에서 있어 실기와 이론, 인문학과 과학, 예술과 사회문화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무용학 연구의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셰릴 도즈(Sherril Dodds)의 편저 『무용학 연구 총서, The Bloomsbury Companion to Dance Studies』(2019)는 이 같은 21세기 해체와 융합, 주제(문제) 중심, 구성주의 지식의 시대 복잡하게 펼쳐진 무용학 연구의 지형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지침서로 연구와 창작 및 교육현장에 매우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도즈가 서문에서도 밝혔듯 해체와 융복합, 학제간 연구의 지평에서 지형도를 그려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시도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연구자에게, 교육자에게, 예술가에게 한 권의 책으로 그려진 무용 연구방법론에 관한 지형도는 그 구체적 포괄보다는 상징적 함축으로 설득력과 타당성을 갖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본서 편집의 탁월함은 편저자 셰릴 도즈(미국 템플대 교수)의 학술적 연륜이 제대로 발휘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그녀는 미국 무용학계를 선도하는 중견 연구자로 본 저서를 비롯하여 『무용과 경쟁, The Oxford Handbook of Dance and Competition』(2019), 『소리의 몸들, Bodies of Sound: Studies Across Popular Music and Dance』(2013), 『규범으로 춤추기, Dancing on the Canon: Embodiments of Value in Popular Dance』(2011) 등 동시대 무용에 관한 시의적인 연구를 이끌어 왔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지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다학제적, 상호문화적, 국제적 연구 경험을 축적한 연구자로 그녀의 연구역량은 본서의 학술적 기획에 신뢰를 한층 더한다. 특히 그녀는 현대무용의 역사가 미국-유럽 중심으로 기술되어 온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다양한 소속과 지역의 필자들을 구성하여 본서를 통해 지리적 연대적 문화적 무용연구의 경계를 더욱 확장하고자 노력하였다.

본문은 무용페다고지, 연구로서의 실천, 무용과 정치, 무용과 정체성, 무용과학, 스크린댄스, 무용민

*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초빙교수, kitri1118@naver.com

족지학, 대중무용, 무용역사, 무용과 철학, 디지털댄스, 새로운 경향 등 12개의 핵심 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장은 특정 연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각 장의 분야를 다루는 무용학자들이 여러 입장과 관점에서 작업하는 역동적인 연구현장을 완벽하게 포착하고 있진 않지만, 무용학 연구가 교육현장 및 연구에서 구축한 주요 관심사와 혁신을 반영하고자 한다. 각 저자는 해당 카테고리의 개념, 방법론, 문제,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학문적 접근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제공한다. 연구 대상이 되는 무용은 실험적 개념의 공연 무용부터 언더그라운드 스트리트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지리적으로는 유럽, 북미와 남미, 카리브해, 아시아의 댄스 창작을 포함한다. 또한 본서가 철학, 교육, 역사, 사회학, 문화연구, 매체, 과학 등 무용학 연구의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모든 무용학 연구분야를 다루고 있다고 단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동시에 가장 다양한 대표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호응한다.

본문은 1장 서론을 포함 총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서론>에서 편저자는 무용연구가 미국 학계에서 하나의 학문 분야로 발전해온 역사적 발자취를 개관하고 동시대 연구가 처한 당면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각 장을 단순 요약하는 서론이 아닌 무용학 연구의 역사적 개관을 제시하여 준다. 2장 <연구문제와 방법>에서 레이첼 펜삼(Rachel Fensham)은 무용학 연구가 과학적 연구 관행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협력연구 프로젝트, 학술지 출판, 인용지수, 연구평가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조명한다. 3장 <무용 페다고지>에서 에드워드 워버튼(Edward C. Warburton)은 종래 발레와 현대무용 교육에서 전제되어온 공연예술 중심 중립성과 보편성을 지적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무용 교육학에서 지속 가능한 무용 교육학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4장 <연구로서의 실천>에서 비다 미지로우(Vida V. Midgelow)는 예술가의 작품활동을 하나의 연구 형식으로 간주하고, 연구로서의 안무적 실천에서 체화된 지식의 속성과 양상, 무엇이 공유되고 생산되는지, 연구 방법과 작업방식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질문의 답을 제시한다. 5장 <무용과 정치>에서 후안 바예호스(Juan Ignacio Vallejos)는 ‘정치(politics)’와 ‘정치적(the political)’을 구분하고, 춤 정치가 기존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행동과 자동으로 연관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주장한다. 6장 <무용과 정체성>에서 프라르타나 푸르카야스타(Prarthana Purkayastha)는 정체성 정치, 소수자 서사, 역사 서술학, 무용 연구의 탈식민화에 대한 날카로운 견해를 제시한다. 7장 <무용과학>에서 엠마 레딩(Emma Redding)은 무용수를 예술가이자 운동선수로 간주하고 무용 훈련에서의 생리학적 요건에 주목하여 건강과 웰빙의 관점에서 무용 참여의 이점들을 탐색한다. 8장 <스크린댄스>에서 하모니 벤치(Harmony Bench)는 영상 매체 속 무용 연구에 주목하고, 스크린 댄스의 개념적 정의, 역사적 전개와 함께 연구 실천에서 제기되는 연구문제와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개진한다. 9장 <무용민족지학>에서 이본느 다니엘스(Yvonne Daniels)는 민속학적 현장조사와 미국 내 무용민족지학의 역사를 비교하며 캐서린 던햄(Katherine Dunham)과 펄 프리무스(Pearl Primus)의 선구적인 작업을 재조명한다. 10장 <대중무용>에서 도즈는 순수예술 중심, 엘리트예술 중심, 기록된 아카이브 중심, 아카데미 중심의 기존 무용연구의 바탕에서 문화연구 방법의 학문적 인기와 함께 촉발된 새로운 문제의식과 대중무용 연구 방법에 대해 논의를 구체화한다. 11장 <무용역사>에서 수잔 매닝(S. Manning)은 무용 역사 서술에서 ‘국가-민족 패러다임’에서 ‘초국가적 패러다임’으로의 전이를 지적하고, 현대무용의 대안적 역사연구 방법을 모색한다. 12장 <무용과 철학>에서 안나 페이크스(Anna Pakes)는 [Pichet Klunchun and

Myself(2006)]을 사례로 현상학, 후기구조주의, 분석철학의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논의함으로써 무용과 철학의 긴밀한 관계와 철학적 행위로서의 증명하고자 한다. 13장 <디지털댄스>에서 헤티 블레이즈(Hetty Blades)와 사라 왓틀리(Sarah Whatley)는 디지털댄스에 대한 용어적 방법론적 정의와 초기의 작업들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개관하며, 모션인식 기술과 안무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한 신체의 체화된 지식의 정보화, 추출된 움직임 데이터의 활용양상을 탐색한다. 14장 <새로운 경향>에서 마크 프랑코(Mark Franko)는 무용학 연구에서 최근 제기되는 연구주제를 ‘세계화, 디지털 문화, 비대칭 전쟁 및 노동(의 종말)’로 제시하고, 이 같은 경향을 긴밀히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탐구와 규명을 강조하고 있다. 마무리인 15장과 16장은 리즈 유티호븐(Lise Uytterhoeven)의 <무용학 연구 핵심개념 A to Z>와 엘리자베스 버그만(Elizabeth Bergman)이 편집한 <주석 달린 참고문헌>으로, 유티호븐은 ‘미학’, ‘드라마투르기’, ‘탈식민성’, ‘디아스포라’, ‘교차성’, ‘즉흥성’, ‘안무’와 같은 용어를 규명하여 동시대 연구에 새롭게 제기되는 키워드들을 진단한다. 버그만의 참고문헌 목록은 무용학 연구 전반에 걸친 학문적 관심과 방법론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각 장의 참고문헌을 재배치 분류하고, 학술지와 온라인자료 목록을 함께 제시해 줌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의 본서에 내재된 키워드 및 주제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해 주고 있다.

해체 시대에 연구방법론에 대한 주목은 연구의 주제와 내용 만큼이나 중요하게 다가온다. 방대한 지식이 빅데이터로 축적되어 적절한 키워드로 검색만 한다면 원하는 지식에 즉각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대, 연구에서 지식을 연결하는 논리로서 방법론은 연구의 핵심이자 창의성을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 방법론의 중요성이 강조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저술들을 통해 무용연구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만만치 않다. 『동시대 안무, Contemporary Choreography: A Critical Reader』(2009)는 동시대 안무를 연구하는 질문들을 철학적 문제, 교육적 상황, 커뮤니티, 미학적 전환, 상호문화적 안무, 무용 너머 영역에서의 안무 등의 6개의 하위주제 아래 제기되는 안무에 관한 질문들을 담은 28개의 글을 선집한 도서로 발간 당시 동시대 무용의 연구관점과 주제를 아우르는 유용한 도서로 활용되었으나, 방법론적 실천적 이해보다는 개념적 이론적 이해를 강조하고, 급변하는 무용연구 동향의 최근 특성들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에 출판된 『무용 연구 방법론, Dance Research Methodologies』(2023)은 편저자들이 대학 학위지도 과정에서 느꼈던 방법론, 용어, 개념의 다양함과 충돌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무용 연구, 무용교육, 무용과학, 학제를 넘어선 무용연구 등과 같은 하위주제로 27개 가량의 글을 선집한 도서로, 여러 연구자들의 글을 담아 최근 연구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는 반면, 소주제의 범주가 단순하여 최신 동향과 키워드로의 두드러진 양상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엄밀히 보자면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무용페다고지, 연구로서의 실천, 무용과 정치, 무용과 정체성, 무용 과학, 스크린 댄스, 무용민족지학, 대중무용, 무용사, 무용 철학, 디지털 댄스 등의 주제들은 기존 연구물들에서 지속해온 논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그에 대한 필자들의 시각과 분석은 독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지점과 연구 수행방식을 소개한다고 할 수 있다. 각 장은 춤 연구의 하위 분야에서 주요 발전이나 주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데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 주요 사례연구를 다룬다. 특히 본격적 주제 논의의 시작(1장, 2장)과 끝(14, 15, 16장)에 무용학이 성립되어온 맥락적 역사적 개관과 함께 연구방법의 새로운 경향 및 핵심 키워드 등을 포함함으로써 무용학 연구에 진입한

연구자들에게 다각도의 접근을 허용케 한다는 점이 두드러진 차별점이다.

기존 저술들이 지나치게 이론 중심이거나, 형식 중심이거나, 타 연구분야의 것이어서 무용연구와의 간극이 좁혀지기 어렵게만 느껴졌다면, 또는 세계를 바라보는 철학적 가치관, 무용에 대한 미학적 예술관, 연구주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틀, 글쓰기 형식에 관한 작문적 지식 등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지식을 포괄해야 하는 버거움을 감내해야 했다면, 편저자의 무용연구에 대한 개인적 역사, 무용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개의 무용연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결과에 대한 사례논의, 무용연구에서 참고할만한 주제별 참고문헌 정리와 키워드로 구성된 본서의 구성은 방법론 이론과 연구 실제에서 벌어져 있던 간극과 실용적인 범주를 채워줄 수 있는 탁월한 취사선택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곧 번역서가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니 무용연구를 배우거나 계획단계에 있거나 가르치는 연구자라면 이를 기다려봄직도 하다.